# 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 | | |
|---|---|---|
| 찬 양 | Praise | 다 같 이 |
| 통성기도 | Prayer | 다 같 이 |
| 신앙고백 | 주기도문 | 다 같 이 |
| 찬 송 | Hymn 40 | 다 같 이 |
| 기 도 | Prayer | 서 새 롬<br>이 의 진 |
| 감사봉헌 | Give Thanks | 가 정 별 로 |
| 성 경 | 누가복음 17:11-19 | 인 도 자 |
| 설 교 | 감사는 깨닫는 사람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 이진우 목사 |
| 찬송과봉헌 | Hymn 307 | 다 같 이 |
| 축 도 | Benediction | 이진우 목사 |

■ 다음주기도 : 정순영 집사

## 예 배 와 모 임 안 내

| | |
|---|---|
| 주 일 예 배 | 오전 11시 |
| 새 벽 기도회 | 오전 5시 30분 (월-금) |
| 수요성경공부 | 매수오후 7시 (예정) |
| 가정교회예배 | 각 가정교회별로 |

## 교회를 섬기는 이들

| | |
|---|---|
| 목 회 사역 | 이진우 목사 |
| 행 정 사역 | 박종갑 장로 남관희 집사 |
| 선 교 사역 | 서정길 장로 안찬호 성도 |
| 양 육 사역 | Kaitlan Hronek |
| 미디어 사역 | 윤지호 집사 |
| 친 교 사역 | 정순영 집사 이현미 집사 |
| 찬 양 사역 | 이오현 집사 서새롬 |

##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성도가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7년 11월 18일 제68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 LIBERTY METHODIST CHURCH

#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716 E 56TH ST. TACOMA WA 98404
TEL. (253) 661-5436, 227-1775
HOMEPAGE: WWW.JAYOOCHURCH.ORG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 금주의 말씀요약

감사는 깨달음의 문제이지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과 형편이 주어지면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들의 환경과 처지가 남달리 특별하고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스러운 형편을 가지고 있고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거나 이제 막 어려운 고비를 넘긴 사람들입니다.

열 사람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 아홉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저들에게 명하시길 제사장에게 저들의 몸을 보이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야 하는 문등병자들 중 기적적으로 병이 낫게 되면 먼저 제자장에게 가서 저들의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은 고치시지도 않고 대뜸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예수님의 명령에 저들이 순종하며 제사장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열 명의 행동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병이 나은 뒤로 아홉 사람과 한 사람이 갈라졌습니다. 아홉 명의 유대인들은 그냥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던 길을 계속 갔고 사마리아 사람만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배우는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감사는 깨달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침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해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은혜는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문둥병이 왜 끔찍하고 무서운 병입니까? 문등병은 고통을 감지하는 신경이 마비된 병입니다. 손이 잘라지고, 발이 떨어져 나가도 그 아픔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손가락이 잘라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그 아픔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문등병자의 고통은 고통을 감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나병 환자들을 위해 일했던 폴 브랜드 박사는 고통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리. 우리의 몸이 조금이라도 아픈 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위험할 때 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는 이런 의미에서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됩니다. 환경적으로 받은 것이 많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받은 것은 적어도 깨달음이 커질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 사람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았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다음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더 많은 은혜가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아홉은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그 아홉은 어디 갔을까요? 아마도 유대인이었던 아홉 명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는 달리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의 병 나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지 모릅니다. 은연중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바로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문둥병 보다 더 무서운 병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병보다 더 비참하고 더 불행하고, 더 무서운 병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냉담해지는 병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병입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 지는 것이라 말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받은 은혜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으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귀한 축복은 감사를 통해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사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병낫기를 소원하는 믿음은 다른 열 사람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대로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보다 본질적인 구원의 축복은 감사한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눅17:19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가장 귀한 축복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저는 지나가 버린 과거는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처지는 어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미 지나가 버려 어찌 할 수 없는 과거조차 바꾸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심을 발견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상처 많은 과거를 바꿉니다. 감사는 우리의 고통스런 환경을 변하게 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구원이며 이 구원의 시작은 감사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실현되기 위해 힘쓰길 원하는 교회입니다.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2. **오늘 예배는 2007년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자녀들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목자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 **오늘 예배시간에 가정별로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봉헌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별 열 가지 감사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4. **추수감사주일 식탁교제를 위해 기쁨과 감사로 자원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5. **노용녀 권사님 따님 내외분께서 플로리다에서 어머니를 방문차 오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 지난주 헌금통계

| | | |
|---|---|---|
| 십 일 조: | $200.00 | |
| 감사헌금: | $235.00 | |
| 주일헌금: | $60.00 | |
| 특별헌금: | $0.00 | **합 계: $625.00** |

## 중보기도 제목

- 우리교회에 주신 오천 명을 먹이는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 장애우를 돕는 밀알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장애우들에게 풍성하게 하옵소서.
- 북한의 땅에도 복음이 증거 되게 하시사 복음을 통해 민족의 통일이 앞당겨 지게 하옵소서.
- 샤론의 집을 통해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한인여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 도산 경로 대학을 통해 노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